

# 안전에 절대 타협 없는 인본주의 경영 전개

한미약품(주) 평택공단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하고 있는 한미약품(주) 평택공단. 이 공단이 지난 2007년 준공됐을 당시 의약·제약 업계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보였었다. 세파플랜트, 바이오플랜트 등 단 두 개의 공장만 들어섰지만 한미약품 자체적으로 '공단'이라고 명명할 만큼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 세파플랜트는 국내 세파게 항생제의 약 70%까지 공급할 수 있는 전용 공장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이곳은 지역 안전인들 사이에도 남다른 관심을 받았다. 공장이 설계될 때부터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재해발생 요소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단이 가동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전개하면서 말 그대로 '안전 사업장'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이다. 안전경영을 바탕으로 제약산업을 선도해나가고 있는 한미약품(주) 평택공단을 찾아가봤다.

### 위험요소 제로화에 총력

한미약품(주) 평택공단이 안전에 얼마만큼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이곳 생산 시설에서 곧바로 파악할 수 있다. 이곳에는 세파항생제를 주사제 앰플과 고형제로 제조하기 위한 각종 설비들이 들어서 있다. 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고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는 일반적인 제조업체에서 흔히 이뤄지는 중량물 취급 작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근골격계질환, 소음 등의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곳은 설계할 때부터 이런 점을 반영했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모든 작업장에 설치돼 있는 리프트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자재나 제품 등을 직접 옮기지 않아도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즉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아울러 이곳에서는 세파항생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절대로 원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종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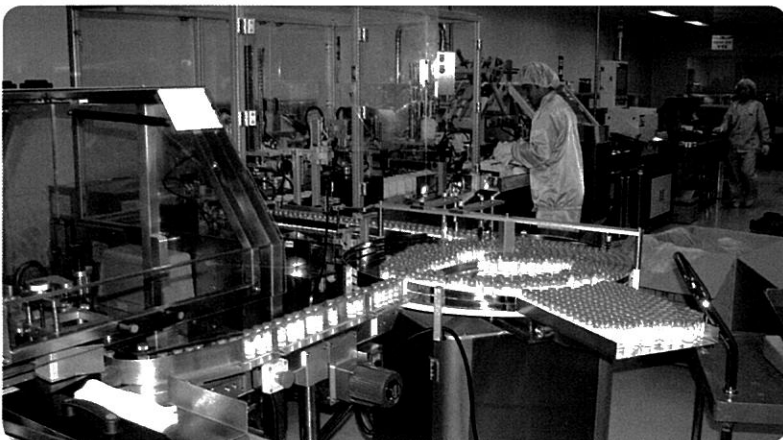
이뿐만이 아니다. 이곳에서는 처음부터 50데시벨 이하의 저소음 생산설비만을 설치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기도 하다. 그야말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놓고 있는 것이다.

### 근로자 안전의식 함양

이곳 안전관리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안전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아무리 안전한 환경이 구축돼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불안정한 행동을 일삼는다면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미약품(주) 평택공단의 경영진들 역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안전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 평상시 실시되는 안전교육이 사고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신념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법정 교육 외에도 모든 근로자들에게 월 1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월 1회 실시되는 직무교육에서도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물론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다. 이곳에서는 교육내용이 근로자들의 몸에 체화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가운데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곳에서는 작업장 곳곳에 안전표어, 안전포스터 등을 부착해 근로자들이 항상 안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철두철미한 5S 활동 실시

의약품 제조하는 이곳 특성상 5S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약품에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오는 상황에서 오염된 물질이 의약품에 포함되는 불상사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제조 공정을 한 달간 진행했다면 청소 공정을 다시 한 달 동안 실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인력 구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은 생산직 근로자가 40명이지만 시험 점검 인력도 이와 비슷한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만큼 경영방침의 방점을 근로자들의 안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안전보건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이곳은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한지 불과 3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흡연자 가운데 30~40%가 금연에 성공했고 나머지 흡연자들의 경우에도 흡연 양을 70~80% 줄이는 성과를 냈다.

공정에 따른 위험요소를 완전히 차단한 가운데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해 다양한 안전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는 한미약품(주) 평택공단. 이곳의 안전관리가 모범사례로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전파되길 기대해 본다. ☺

#### mini interview



김태서 세파플랜트 공장장

### 예방, 안전의 다른 이름입니다

안전관리의 핵심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내 가족과 같은 근로자가 다치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는다면 이는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저는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진들은 앞장서서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근로자들 역시 '살마하는 안전불감증을 버리고 안전하게 작업하는 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